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이념 율법주의

성경: 로마서 2장 1-10절

Tag: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롬2:1-10)

로마서에는 당시 바울 사도가 유대교 율법주의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율법주의의 실상을 자세히 연구하고 밝힌 내용을 담고 있

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념 율법주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이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로 반목하는 분위기는 아니나, 우려스러운 것은 신학자들이 뒷짐 지고 있으며, 교단 총회에서조차 이 이념 율법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리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계시를 신중하게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 한국교회는 이념 율법주의를 예의주시하며,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터 위에 바로 서야 하는가?

첫째 이념 율법주의는 진리되는 성경말씀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가치기준에 인본주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 율법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한 인본주의 정신과 율물론에 입각한 가치이며, 이 율법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로 인한 경화현상이 광범위하게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념 율법주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적 치졸함)

넷째 이념 율법주의는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경계하는 자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하기 때문이다. (가장 극렬한 예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는 극존칭을 사용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다섯째 이념 율법주의는 서슴치 않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부자와 가난한자를 갈라치기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갈라치기하고,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하여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

고 불평등한 법률을 남발하여 결국은 사회를 분열 시키고, 경제를 파탄나게 하였다.

여섯째 이념올법주의자들은 검증되지 않는 경제정책, 에너지 정책, 군사정책, 법무정책, 외교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등을 무분별하게 도입,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다.

### 이념올법주의 사례

교육; 학생들에게 전통적이면서도 새롭고, 이로운 문화화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을 가르치고 있다.

기존교과; 경제, 생활과 윤리,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새로운교과;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전교조 이념편향교육;(현재 여러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에 고소당하여 재판이 진행 중)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 교육은 개인적 편향성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님.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교사들은 반대하는 학생들을 수구, 꼴통, 일베, 적폐, 친일 등으로 낙인 찍음. 심각하게 어린이들을 좌편향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음.

성교육;프리섹스를 강조함. 68혁명의 영향. 가정은 무시함.

### \*이념적 성경 해석

-달란트 비유;김재수 교수(미국 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과)

[출처: 뉴스앤조이] <청소년 매일성경>, '주류에 어긋난 좌파식 성경 해석' 항의 쇄도에 경제학자 김재수 교수 연재 중단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04>

김 교수는 "달란트 비유는 대체로 칭찬받는 승자의 관점에서 해석돼 왔지만, 주인으로부터 저주받은 패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많은 질문과 묵상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의 것까지 빼앗고 내쫓는 주인 같은 분인지 되물으며, 비유를 통념과 반대로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리켜 "부당함에 맞선 당당한 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주인과 품꾼, 누구의 이야기일까'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고용한 일꾼이나 해 질 녘에 고용한 일꾼 모두에게 동등한 임금을 줌.

김 교수는 이 비유를 풀이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인 관점'의 일반적인 해석 대신 '일꾼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품꾼은 농장주가 정해 주는 대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임금 협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을'이었다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기독교적 프레임을 공격하기 위한 제물.

-현재 사회 부적응자들은 많다; 정신병자, 아동성애자, 성범죄자, 중독자(마약중독, 알콜중독 등)-동성애자도 이들 중 한 부류(특히 혐오 유발자).

신학자들 중에 동성애 옹호론자(좌파 신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나, 성경의 진리에 어긋남.(이단에 속함)

-나들목교회 김형국목사의 페이스북;(뉴스엔 조이, 한빛누리, CBS)

-나는 중북이 아니다. 실패한 정권을 옹호하는 자는 없다. 다만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자일 뿐이다. 나는 민북(북

한을 불쌍히 여기는 자)일 뿐이다.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 기독교탄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그 행악한 집단을 달래려고 한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에겐 비난한다.

-북한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다. 이들을 돕는 것이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이 곧 북한 주민은 아니다. 악한 정권은 망해야 답이다. 타협의 대상이 아님. 종전선언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책임까지 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유아틱 발상. 그들은 책임 이야기 하지 않음. 바보임.)

-그들은 여전히 적군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다. 그들의 핵은 장난감이 아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나,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취향), 성적 행위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결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함.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그럴듯한 유식한 표현에 불과함.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용납하는 것은 어불성설. 유식한척만 하는 무식자이거나 사실은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반대하는 척을 하는 위선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더 우선시하면서 성경을 폄훼하는 율법주의자.

-동성애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게 아니라, 동성애 이슈를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 망할 우려가 있음. 논점 비틀기 수법.

-정작 동성애자들은 결코 전면에서 나서지 않음. 그들도 회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며, 하나님도 혐오하시는 가증한 죄인임. 차라리 불쌍한 도둑놈을 이해하시오.

-그들을 이해하면서 용납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교회나 사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함.

-현재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음.

-동성애(부자연)는 용납하고, 혐오자는(자연) 용납하지 못하는 논리적 오류에 빠져있음. 아리송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함?

### \*환경

-환경 탈레반;선진국은 탄소깡패. 중동의 난민들이 그 피해자.  
-왜 남한은 환경 탈레반인데, 피해는 북한이 보는가? 어불성설.  
-정작 아프카니스탄을 망친 것은 그들의 종교관. ; 그들은 왜 정의롭지 못했나? 왜 여전히 총을 들고 있는가? 그들은 왜 자신들의 난민을 돕지 못했나? 그냥 한끼만 주었나? 어마 어마한 미국의 원조는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베트남의 재판. 그들은 미국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선의의 원조로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황금같은 기회를 놓쳤다.  
(미국은 한국인과 협력해야 한다.)

-원전이 위험? 환경주의자가 만든 공포  
-‘종말론적 환경주의’(패트릭 무어 지음)-그린피스 공동설립자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  
-1973년 북극곰 보호조약 체결 이후 북극곰은 늘었다.  
-생물보호 노력으로 멸종생물 감소.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안전한 기술.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다고 알고 있다.  
-유전자 변형식품에는 유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형산불은 관리부족으로 일어나지, 기후변화가 원인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태양의 활동, 거리, 각도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는 극히 미미.

-과거에는 산업화 저주 광풍이 불었다. (은하철도 999)  
-박정희 정권때 대학들, 모두 농촌을 살리자고 난리.  
-지금도 농총처럼 도심에서 마을을 이루자고 난리.

-마을 생태계를 이루자고 함.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거절하고 엉뚱한 이상향을 지향함.

-종교가 된 환경주의 (지구 숭배) 반 산업화, 반 문명주의.

-마이클 클라이튼,(하바드 의대 졸, 유라기 공원 작가) 환경주의는 신화적 환상에서 떠나 올바른 과학으로 가야한다.

-회개하라repent! 재사용하라 reuse! 재활용하라recycle!

-돈과 권력 때문. 정치인-표, 언론-공포, 환경단체-후원금

율법주의의 공통 성질, 특성, 경향성.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 자신의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함.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 심판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계시는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미국인가 아프가니스탄인가?)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3. 그들은 당을 짓는다.

4.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5. 그들은 불의를 따르고 죄를 범하고 돈을 탐한다.

-항상 세상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선전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 명예, 자리, 돈, 패거리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자기들은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 율법에서 벗어 난다. (내로남불)

우리는 빨리 이런 불합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요한복음 성경공부(4)

성경: 요한복음21장

Tag:

13장 1;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2. 마귀가 유다에게 악한생각을 넣어 줌

18. 성경을 옹하게 하려 하심.-가롯 유다는 운명적인가? 운명이 아님. 사람이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심.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저지하지 않으심.

-그러나 심령으로 괴로워하심.

21. 가롯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하심

-선한 의도와 충성심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마귀가 역이용하는 것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사이의 전쟁.

\*사랑의 방식

4절;세족식,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함을 아시고, 실수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심은, 그런 자들의 실수를 씻어 주라는 뜻.

-목사는 모든 자들의 허물을 씻어 주지만, 입을 다무는 존재.

(천주교의 고해성사)

38.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 이 또한 베드로의 의이나, 그것은 유다처

럼 마귀가 준 마귀의 의가 아니라, 베드로의 철없는 의.

-단순하고, 부끄럽고, 유아틱한 의.

14장. 설교말씀. 고별 설교.

-근심하지 말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하시는 예수님.

8절;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12절;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 핵심이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모든 말씀이 효력이 있음. 사랑하라.

16절; 보혜사를 보내리라. 진리의 영. 너희 속에 계시리라.

27절;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31절; 여기를 떠나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자. 이후로는 도정에서나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설교.

15장

1절;포도나무와 농부. 가지와 즐기와 열매 맺음.

7절;조건적 기도.

9절;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제적 모습;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거하라.

17절; 서로 사랑하라.

16장;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